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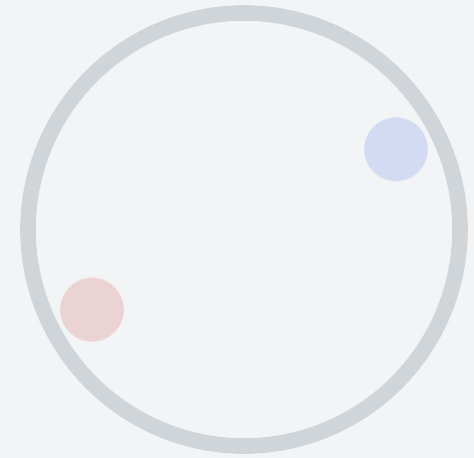
2

조화정(造化定) 지관(地觀)의 자생적 근대성

Indigenous Modernity of the Johwajeong View of Earth

목차

- 1 연구 배경 및 목적
- 2 서양의 질료적 지관
- 3 동양의 응축적 지관
- 4 동서양 지관의 충돌
- 5 천지관계의 상극화
- 6 동학사상의 조화정 지관
- 7 결론 및 의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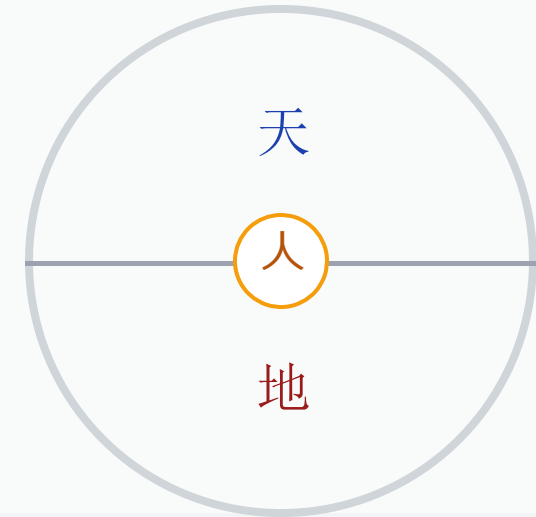
I 연구 배경 및 목적

연구의 필요성

- 동서양의 지관(地觀)에 대한 비교철학적 접근 부재
- 서구 중심의 근대성 담론에서 벗어난 자생적 근대성 모색 필요
- 동학사상의 조화정 지관이 가진 현대적 의미 재조명

'지관(地觀)' 개념 개요

- 서양: 질료적(質料的) 지관 - 초월적 형상이 실현되는 질료로서의 땅
- 동양: 응축적(凝縮的) 지관 - 천지의 기를 형체와 그릇으로 실현하는 존재



연구 목적

- 동서양 지관의 철학적 구조와 충돌 양상 분석
- **핵심 질문:** 동서양의 지관이 어떻게 충돌하였으며, 동학사상의 조화정 지관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자생적 근대성을 형성하였는가?
- 천지관계의 상극화 과정과 그 근대적 의미 고찰

동학사상의 조화정 지관에 나타난 리미널리티와 자생적 근대성 해명

| 서양의 질료적 지관

초월천(천외천) 중심의 서양 자연관

- 초월천에 따라 이데아, 유일신, 유물론적 이성으로 지관 변화
- 땅은 형상이 실현되는 질료적 존재로 간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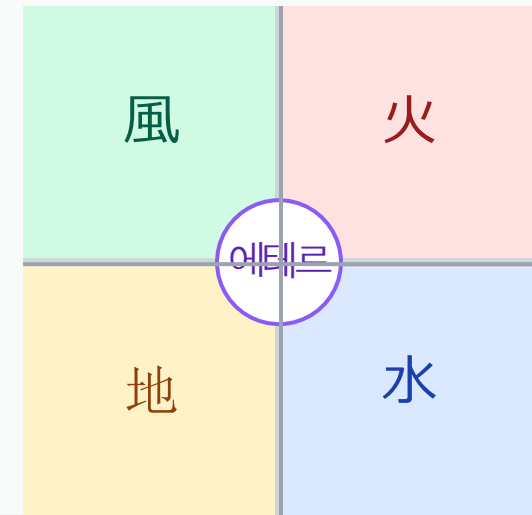
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(지수화풍)

- 탈레스에서 엠피도클레스로 이어지는 4원소설의 발전
- 서양의 지수화풍: '실체'로 된 상관적 사유 (동양 음양오행과 차이)
- 제5원소(에테르)와 4원소의 균형 체계

실체론적, 원자론적 세계관

- 물질 문명 발전에 기여했으나 신명체계 붕괴와 자연 지배로 전락
- **핵심:** 서양의 질료적 지관은 초월천에서 비롯된 형상이 실현되는 장소로서 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, 근대 물질 문명 발전에 기여했으나 인간-자연의 관계를 지배-피지배 관계로 전락시켰다.
- 근대 원자론적 세계관: 자연을 분석·지배의 대상으로 전환

인도-유럽 3기능 체계와 천관지관인간관의 구조적 연관



동양의 응축적 지관

내재천 및 천지신명 중심의 지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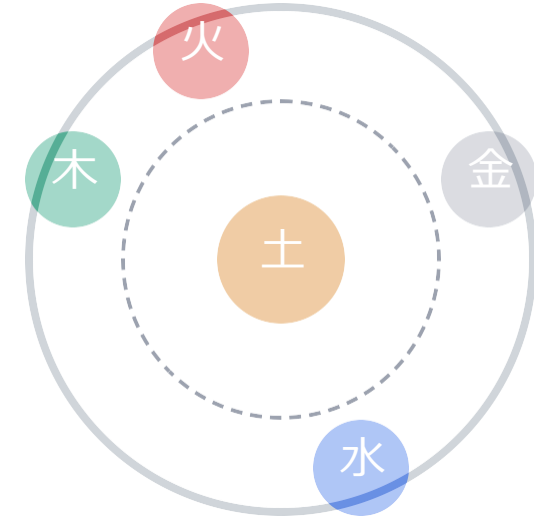
- 하늘(천)과 땅(지)이 상호작용하는 내재적 세계관
- 땅은 천지의 기를 '응축'하여 형체와 그릇으로 실현
- 『역전(易傳)』: "지극하도대! 坤元이여! 만물이 坤元에 비탕하여 생겨난다"

상관적속성적 세계관

- 음양오행: 서양과 달리 '속성'을 강조, '실체'보다 '관계'를 중시
- 삼재(天地人): 천·지·인을 독립적 존재가 아닌 상호 영향의 구성체로 이해
- 오행의 상생(相生) 작용을 통한 조화적 우주관 형성

공간의 속성과 의미

- 풍수지리: 땅을 숭배와 조화의 대상으로 간주
 - 핵심: 동양의 지관은 땅을 서양과 같은 질료적 대상이 아닌, 하늘과 상호작용하며 만물을 생성하는 응축적 존재로 파악한다.
 - 천원지방(天圓地方): 하늘의 시간성과 땅의 공간성의 조화
- 삼수분화: 만물을 천지인 3가지 구성물로 보는 복잡계적 프랙탈 구조



음양오행의 상생 관계

"동양의 응축적 지관에서는 땅은 도구나 지배 대상이 아님"

동서양 지관의 충돌

마테오 리치의 『천주실의』와 세계관적 충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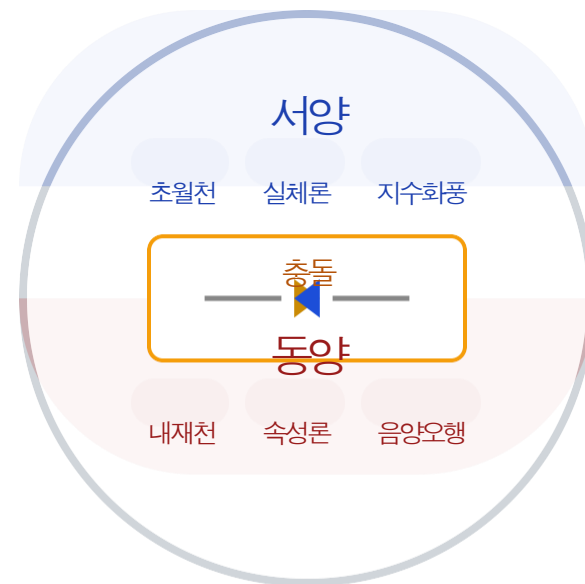
- 초월적 천관과 질료적 지관이 동양의 응축적 지관에 충격
- 음양오행과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(지수화풍) 논쟁
- 동양이기론과 서양 존재론의 철학적 대립

제국주의와 물질적 충돌

- 수운 동학 창도 즈음 베이징조약(1860) 등 서양의 침략
- 루쉰의 『아큐정전』에 묘사된 정신분열적 충격
- 『용담유사』에 기록된 서구 열강의 침략과 동양인의 위기의식

근대성의 문제

- 서양: 동양사상 수용 이후 과학기술 발전, 제5원소 철학 변질
- **중요 시점:** 마테오 리치의 『천주실의』(17세기 초) → 철학적 충돌 → 베이징조약(1860) → 물질적 충돌 → 동학 창도(1860) → 자생적 근대성 모색
- 동양: 초월천 배제, 천지관계의 고착화와 상극적 변화
- 자생적 근대성의 필요성 대두(서구 모방이 아닌 독자적 발전)



| 천지관계의 상극화(相克化)

서양 천지관계의 상극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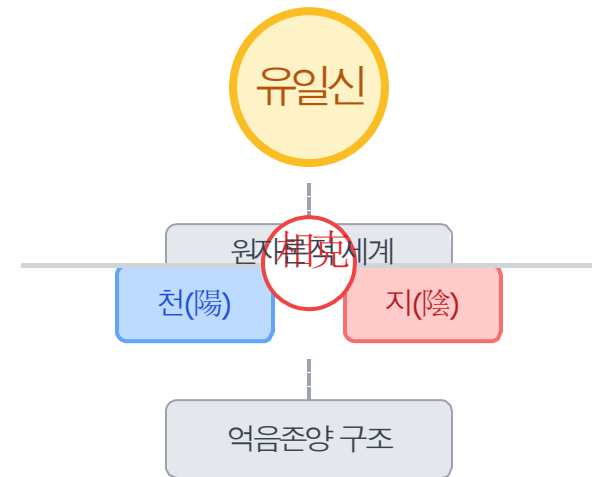
- 유일신과 만물의 이원적 대립 구조 심화 지수화풍
- 의 상관성 소멸, 원자론적 세계관으로 전환
- 제5원소의 초월화: 물질과 재리(財利)로 대체된 이성

동양 천지관계의 상극화

- 천존지비(天尊地卑): 형식적 균형에서 위계적 질서로
- 억음존양(抑陰尊陽): 음양의 불균형적 지위 고착화
- 토(土)의 내재화: 상제 개념 망각과 지존의 기복화

천지관계의 위기

- 절지통천(絶地通天): 하늘과 땅의 관계 단절
- 핵심: 동서양의 상극화된 천지관계는 근대 위기의 본질적 배경이 되었으며, 이는 리미널리티의 상실과 초월성내재성의 단절에서 비롯되었다.
- 인간과 자연의 대립: 지배와 정복, 생태적 보복
- 근대적 지관의 비극: 조화의 상실과 상생의 위기



동학사상의 조화정(造化定) 지관

사상적 융합과 자생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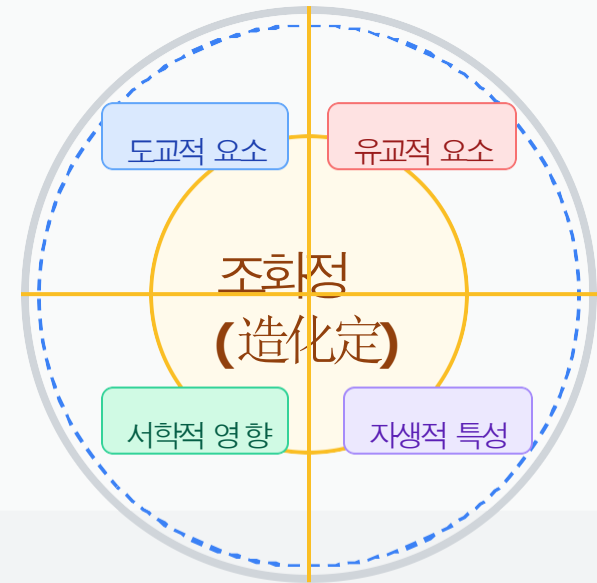
- 도교유교서학의 요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독자적 지관 확립
- 수운의 천사문답과 신비체험을 통한 지관의 정립 과정

리미널리티와 경계의 초월

- 초월내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'리미널리티' 확장
- 천지귀신(天地鬼神)의 영적 상호작용과 전일적 세계관
- 무위이화(無爲而化)를 통한 조화(造化)의 구현

자생적 근대성의 특징

- 수행 중심의 실천적 지향과 백성의 평등한 참여
- **핵심 개념:** 동학의 조화정 지관은 천지귀신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리미널리티를 통해 상생적 질서를 구현하며, 이는 서구와 다른 자생적 근대성의 핵심이 됨
- 명당(明堂)의 재해석을 통한 풍수지리적 전통 계승 상생 (相生)과 해원(解冤)에 기반한 조화정(造化定) 지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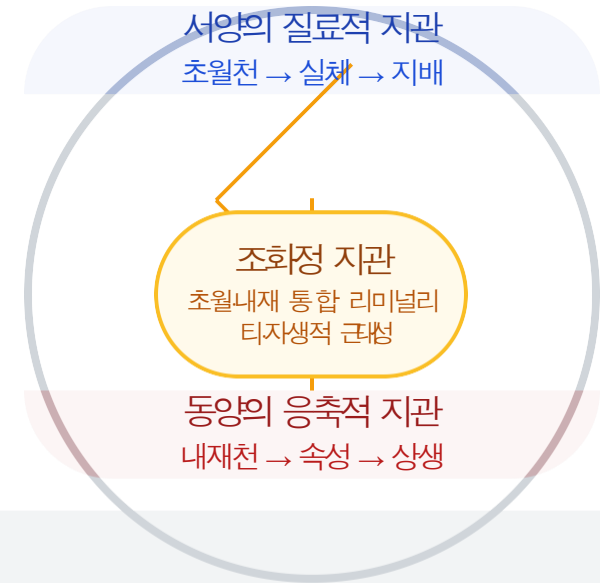
| 결론 및 의의

동서양 지관의 차이와 충돌

- 서양: 질료적(실체론적) 지관 - 지배와 정복의 대상
- 동양: 응축적(속성 중심) 지관 - 상생과 조화의 관계
- 마테오 리치 이후 세계관적/물질적 충돌과 상극화 진행

동학사상의 조화정 지관의 근대적 의의

- 초월적내재적 천지관을 통합하는 리미널리티 구현
- 상생과 조화 중심의 귀신론적 천지관계 확립
- 수행일상의 통합과 평등사상으로서의 근대적 지관 제시



연구의 기여와 후속 과제

연구의 핵심: 동아시아 자생적 사상 재발견

- 지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천지귀신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, 자생적이고 대안적인 근대성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.
생태·환경 위기 시대의 대안적 천지관계 모색에 기여
- 향후 천지관계와 근대성에 대한 다학제적 후속 연구 필요